

올해 주식형펀드 수익률 23% '1위' 상승세 탄 '인도'... 투자금 몰린다

중국 대체하는 투자처 급부상 31개 펀드 설정액 1조7485억 연초대비 9152억 가량 늘어
“경제성장 확대, 건전성 개선에 당분간은 증시 상승여력 충분”



ChatGPT가 생성한 인도 ETF 상승 이미지.

고성장 가도를 달리며 중국 대체시장으로 부상중인 인도가 국내 투자자의 주목을 끌면서 올해 들어 인도증시 투자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인도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전반기까지 23%로 1위를 기록, 베트남(16%), 일본(14%) 중국(-2%) 등 아시아권 펀드에 비하면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인도 증시 등에 투자하는 인도펀드 31개의 설정액은 1조7485억원으로 연초 대비 9152억원 가량 늘어났다.

주요 상품별로 보면 인도 증시의 대표지수인 니프티50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KODEX 인도Nifty50'와 'KOSSEF 인도Nifty50(합성)'은 올들어 각각 18.82%, 17.98% 올랐다. 'TIGER 인도니프티50'도 17.75% 상승했다. 이 같은 수익률 증가로 TIGER 인도니프

티50의 순자산은 6610억원으로 올해에만 4482억원 늘었다. KODEX 인도Nifty50도 4971억원으로 3878억원 증가했다.

인도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인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으로 제조업 육성 중심의 경제정책인 '모디노믹스'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을 제쳤다”며 “미·중 갈등이 깊어진 2018년부터 인도 경제 성장률은 신흥국 주요국 대비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 7.8%,

2024년 추정치 6.8%, 2025년 추정치 6.5%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사들도 앞다퉀 관련 ETF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오는 10일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출시한다. 인도 시장의 성장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와 'ACE 인도시장대표BIG5그룹액티브'다.

앞서 삼성자산운용도 지난 5월 인도 테마형 ETF 'KODEX 인도타타그룹' 상품을 상장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같은 달 인도 소비재 상위 기업 20 곳에 투자하는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를 선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인도증시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도증시의 성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지원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성장 확대와 재정 적자 목표치 하향에 따른 건전성 개선, 소비 촉진 등으로 인도 증시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원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융위원장- 자산운용업계 간담회

· 일시 : 2024.9.5.(목) 10:00 · 장소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령화 시대, 생애주기별 연금 개발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권 간담회 “사적연금 시장 상품 다양화 위해 국민연금 이어 퇴직·개인연금 혁신”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혁신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위한 장기투자형 연금상품을 개발해 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업권을 대상으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융투자협회장과 1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운용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적연금시장의 경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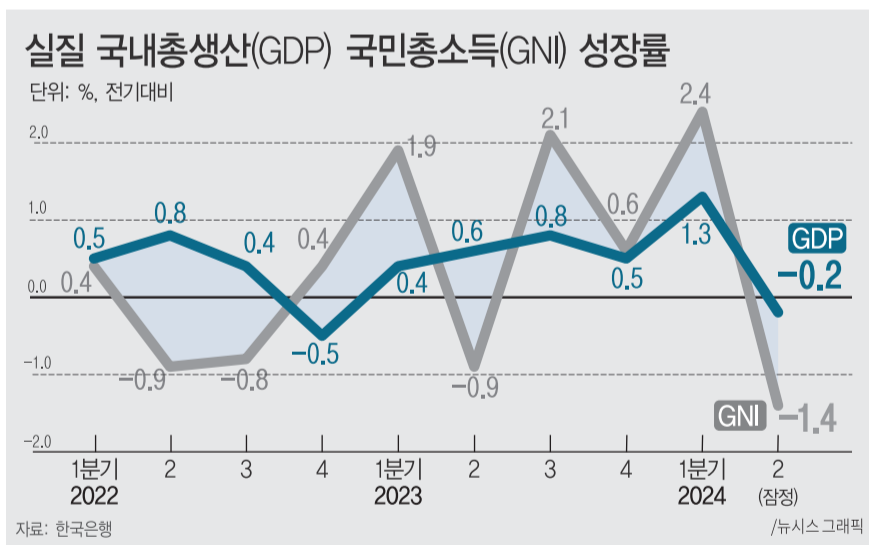
기데이트펀드(TDF) 위주로 펀드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연금은 오랜시간 검증된 가장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연금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TDF는 개인별 생애주기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산배분곡선(글라이드패스)에 따라 알아서 조정해주는 자산배분 펀드를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적연금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퇴직·개인연금을 혁신할 계획”이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샌드박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을 구축해 사적연금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국민소득 1.4% ↓... 33개월래 최대폭 감소

한은, 2분기 GNI 559조5000억 총 저축률은 227조, 1.2%p 상승 GDP 0.2% ↓... 6분기만에 감소



차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실질 GDP는 지난 2022년 4분기 0.5% 감소한 이후 ▲2023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 ▲2024년 1분기 1.3% 성장했다. 6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하고,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반면 내수(소비·투자) 지표인 민간소비는 의료, 승용차 등 재화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다. 건설투자 또한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7%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줄면서 1.2% 내렸다.

이날 한은은 2분기 GDP 성장률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경기침체가 가시화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상회하고 있고, 민간소비 증가율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지수가 두달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침체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전망치 2.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부장은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내수의 경우 최근 기업 실적 좋아지면서 기업 투자 여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의 경우도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개선되면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감원, PG사·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킷오프회의 은행·보험·카드 등 관리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서 드러난 비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금융협회, 전문가들과 구성된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의 킷오프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보험대리점(GA),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론화를 거쳐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안 전환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내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

“기반 전력망 구축, 가장 시급한 과제”

» 1면 '반도체특별법 등...'서 계속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규제개혁 등을 요청하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에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되어야 글로벌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취재진에게 “오늘 대화의 99%

가 에너지”라며 “신재생에너지라는 흐름이 있고,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두 분이) 공감한 것은 에너지 문제가 정말 첨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태홍·윤도현 기자 pth7285@